



노조 파괴 없는 곳에서 편히 쉬소서

이제야 열사를 보내드렸다

353일만의 장례였다. 노조파괴 없는 세상을 염원했던 한광호 열사를 이제야 쉴 수 있게 보내드렸다. 아직 노조파괴를 완전히 끝장내지 못했지만, 노조파괴 범죄자인 유시영 대표이사를 구속시켰다. 열사 앞에 조금은 당당하게 편히 쉬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 살아서는 노조파괴 탄압에 고통받고, 죽어서도 1년 가까이 농성을 해야했던 열사의 넋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고이 보내드리고자 했다. 구름 한 점 없이 너무 맑은 날, 열사를 보냈다.

유시영이 구속됐다! 다음은 정몽구다!

열사 투쟁을 통해 우리는 유성기업 유시영을 구속시켰다. 범죄자 처벌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는 끝내 해냈다. 그러나 유성기업은 여전히 반성은 없다.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구조조정 협박을 하고 있다. 유성기업의 노조 파괴는 그래서 아직도 진행 중이다.

유성기업의 배후에는 현대차가 있었다. 검찰의 수사자료에서

현대차가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물이 쏟아졌다. 현대차 관련자들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시간만 끌었다. 우리는 또다시 법원의 직접 판단을 요청하며 재정신청을 했다. 검찰의 사업주 봐주기는 끝이 없다.

노조파괴라는 반 헌법적 범죄가 근절되려면 사업주가 강력히 처벌받아야 한다. 유성기업의 유시영을 구속시킨 것처럼, 진짜 주범이자 몸통인 현대차 정몽구 회장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범죄는 언제든 또 다시 벌어진다.

열사는 보냈지만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열사투쟁은 이제 일단락 됐지만, 노조파괴 분쇄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지회는 양재동 현대차 농성을 계속 지속해가며 현대차 처벌을 요구할 것이다. 하청업체 노사관계까지 직접 개입한 재벌 원청사의 만행을 제대로 처벌할 때까지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유성기업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조 파괴 공작을 끝장낼 때까지, 어용노조를 완전히 해체할 때까지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열사가 하늘에서 지켜본다. 열사가 바라던 노조파괴 없는 세상을 우리 손으로 만들자.

지부 주간사업

3/06(월) 14:00 지부 운영위 수련회 (충남 계룡산 '해피투게더')

3/07(화)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 농성

3/08(수) 11:00 109주년 세계 여성의 날 기자회견 (충북도청 앞)

14:30 세계 여성의 날 전국여성노동자대회 (서울 광화문 광장)

3/10(금) 13:30 금속노조 법률학교 (충남 논산 '라운빌리지')

16:00 동광기연 정리해고 분쇄! 금속노조 결의대회 (인천 작전동 동광기연 앞)